

교회는 무엇이며 왜 존재할까요?

‘교회’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회중, 모이는 공동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의 목적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기 위해 모였습니다(행 2:42).

이는 예수님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감독(supervision)하시고, 가르치고 교정하여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선교 공동체, 사역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신 대상은 죄인, 세리, 병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떡을 떼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이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과 함께할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Mission Church) - 목양적 교회(Ministry Church) - 유지를 위한 교회(Maintenance Church) - 박물관 교회(Museum Church)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고 봤습니다. 역동적이던 선교적 교회가 본질과 목적을 잃고 건물과 인원수를 유지하는 데 머물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곧 예수님의 사명을 따를 때 교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 ❶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❷ 예수님의 사명과 얼마만큼 닮아 있습니까?